

Phase II study of paclitaxel and ifosfamide as a salvage treatment in metastatic breast cancer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¹내과학교실, ²외과학교실

¹서재홍*, ¹윤소영, ¹백창원, ¹최인근, ¹김석진, ¹최철원, ¹김병수, ¹신상원, ¹김영홍, ²구범환, ¹김준석

목적: 일차적 항암화학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유방암환자의 구제항암화학요법은 아직도 만족스러운 반응률을 보여주지 않고, 또한 생존율의 향상도 뚜렷하게 보여주지 않고 있다. 본 연구자들은 단일항암제로서 유방암에 30-60%의 반응률을 보여준 paclitaxel과 ifosfamide를 병합투여하여 anthracycline계통의 항암제에 노출되었던 전이성 유방암환자들에게서 반응을 및 생존율 확인하고, 치료독성 및 임상적 적용가능성을 평가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대상환자는 1997년 1월부터 1998년 8월까지 고대부속병원에 내원하여 전이성 유방암으로 진단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복합항암화학요법은 paclitaxel 175 mg/m² day 1에 24시간 지속정주하였고, ifosfamide 1800 mg/m² day 2, 3, 4일간 72시간 정주하였다. 치료효과의 판정은 WHO기준으로 항암치료 매 2회마다 병소부위를 평가하여 완전반응, 부분반응, 불변 및 진행의 경우로 분류하였고, 독성의 평가도 WHO 분류를 기준으로하여 Grade III이상의 심한 독성을 나타낸 환자의 경우에는 25% 감량하였으나, 백혈구감소증의 경우는 Grade 3의 경우 GM-CSF를 사용하면서 감량하지 않았다. 통계학적처리는 SPSS for window ver. 7.5 를 이용하여 처리하였고 중앙생존기간은 Kaplan-Meier방법으로 산출하였다.

결과: 전체대상환자는 15명이었고, 환자의 연령분포는 27-63세(중앙치 45세)였고, 성별분포는 대상환자 모두가 여자였으며, Performance score는 1-2이 6명, 3가 9명였고, 병기는 모두 IV 였다. 호르몬수용체는 평가가능한 12명중 ER, PR 양성인 6명(50%)였으며, 전이장소는 폐전이 9명(60%)로 가장 많았고, 골전이가 6명(40%)였고 이외에도 피부 및 연부조직전이가 각각 4명(26.7%)을 보였다. 기존에 시행받은 일차적 항암화학요법으로는 CAF요법이 10명(66.6%), CMF요법이 2명(13.3%), 경구UFT투여가 3명(20%)였고, 호르몬치료를 시행받은 환자는 5명(33.3%)였다. 반응률은 완전반응 2명(13.3%), 부분반응 5명(33.3%), 불변이 8명(53.3%), 진행된 경우는 없어 전체반응률은 46.7%(95% 신뢰구간 22.3 ~ 72.6%)였다. 전체대상환자 15명의 중앙 생존기간은 추적관찰기간이 짧은 관계로 값을 구할 수 없었으며, 반응군에서의 평균반응지속기간은 8개월(3~15개월)이었다. 환자가 받은 총화학요법은 총 56회였으며, 환자당 중앙치가 4회였다. 관찰된 혈액학적 부작용중 Grade III이상의 경우는 백혈구감소가 11명(73.3%)에 달하였고, 혈소판감소는 3명(20%)였으며, 비혈액학적 부작용으로 오심과 구토의 경우가 1명(6.7%), 설사, 구내염 및 신경독성의 경우는 관찰되지 않았고, 치료중 사망한 예는 없었다.

결론: 기존의 항암제에 노출되었던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서 본 연구자들이 시행한 paclitaxel 및 ifosfamide 병합항암화학요법은 기존의 구제요법에 비하여 의미있는 반응률을 보였고 치료독성면에서 백혈구감소증의 빈도가 높았지만 GM-CSF 투여로 조절이 가능하여 임상적인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었다. 이 병합항암화학요법의 임상적 유용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서는 추후에 보다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한 3상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한 Vinorelbine, Ifosfamide의

복합항암화학요법의 효과

이문희¹, 유영진¹, 정경애², 김효진³, 신동복⁴, 이순남⁵,

김성록⁶, 허대석¹, 방영주¹, 김노경¹

서울의대 내과¹, 보라매병원 내과², 동아의대 내과³, 가천의대 내과³,

이화의대 내과⁵, 인제의대 내과⁶

목적: 폐암은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 주요한 사망 원인이 되고 있다.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많이 사용되던 Cisplatin과 Etoposide의 복합항암화학요법은 반복투여시 발생하는 신독성, 신경독성과 치료효과의 한계가 문제였다. 최근에는 비소세포성폐암에 대한 새로운 항암제의 사용이 시도되어 기존보다 좋은 성적 및 적은 부작용을 보고하고 있으며, Vinorelbine도 그 새로운 약물중의 하나이다.

목적: 이에 저자들은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Vinorelbine과 Ifosfamide의 복합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여 반응율과 반응지속기간, 생존율 및 부작용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였다.

방법: 1997년 3월부터 1998년 3월까지 참여병원들에 입원한 환자 중 조직학적으로 비소세포폐암으로 확진된 환자로서 진행성 또는 전이성 병변으로 근치적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Vinorelbine(25mg/m², 제1, 8일에 10분간 정주투여)과 Ifosfamide(2g/m², 제1-3일, 30분간 정주투여, Mesna 병용)를 3주 간격으로 투여했고, 혈액학적 독성이 있는 경우 용량을 감량하였다.

결과:

1. 등록된 38명(IV기가 25명, 흉수가 있는 IIIB가 7명, 그 외 IIIB가 6명) 중 평가가능한 34명(남:여 = 22:12)에서 중앙연령은 60세(38-69세)였다. 복합항암화학요법의 투여횟수의 중앙치는 4회였다.
2. 평가 가능한 34명 중 완전관해는 없었으며, 부분관해는 13명(31.7%), 불변은 13명(37.1%), 진행은 8명(22.9%)였다. 관해지속기간의 중앙값은 16.4주, 생존기간의 중앙값은 41.5주였다.
3. 전체 38명 중 비혈액학적 부작용으로는 탈모증 38명(100%), 오심 34명(89.4%), 구내염 6명(15.7%), 피부홍반 7명(18.4%), 감염과 관계없는 발열 4명(10.5%), 감염 3명(8%), 혈뇨 4명(10.5%), 근육통 4명(10.5%), 신경독성 3명(8%)이 있었고, 혈액학적 부작용으로는 2도 이상의 중성구감소증이 30/162(18.5%)회, 빈혈이 7/162(4.3%)회 있었다. 그러나 부작용으로 탈락하거나 독성으로 사망한 환자는 없었다.

결론: 이상의 결과로 진행성 비소세포폐암에서 Vinorelbine과 Ifosfamide의 복합항암화학요법은 기존의 치료보다 부작용은 적으면서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사료된다.